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진안군, 6주 간격으로 총 3차례 걸쳐 거리두기 개편안 본격 시행

진안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

운영 기간 4주와 평가 기간 2주를 포함, 6주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생업시설부터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사적모임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한 단계 개편 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역량·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일지를 판단해 다음 단계 개편 전환이 결정될 예정이다.

먼저 민생 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는 11월 1일부터 6주동안 적용될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2차례에 걸쳐 해제되고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사실상 어려운 특성으로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복합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한다.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의 이용을 차단하기 어려운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춘다.

영화관이나 실외 스포츠의 관람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 등만 이용 가능하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접종

완료자·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해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은 12명으로 모임 인원이 확대된다.

전춘성 군수는 "개편안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됐지만 군민 스스로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과 다중이용시설 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작성 등 꼭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잘 지키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더 나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청년들의 소통공간인 '청년마루'가 1일 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황의탁 도의원을 비롯한 청년정책협의체 회원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청년 소통공간 '청년마루' 개소

무주군, 지역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무주 청년들의 소통공간인 '청년마루'가 1일 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황의탁 도의원을 비롯한 청년정책협의체(회장 박용수) 회원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황인홍 군수는 "청년은 한 사회를 떠받치는 힘"이라며 "이 자리가 청년의 힘을 믿고 응원하는 계기, 이 공간은 우리 청년들이 소통하며 뭉쳐 역량을 발휘하게 만드는 발전소, 무주다운 무주를 일구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청년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기회보장,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청년인구문제를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청년마루'는 지역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공간으로, 지난 4월 전라북도 주관한 청년소통 공간 '청년마루'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 확보)을 계기로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무주군은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시설 및 프로그램(무주청년, 무주와 통(通)하다)을 운영한다.

'무주청년 무주와 통하다'는 소통(강연자 초청, SNS활동, 기자단 운영), 문화(문화공연행사 진행), 복지(동아리 활동 등 지원), 교육(진로체험 등 지원), 역량강화(토론회, 정책 발굴) 등 5가지 테마로 진행돼 무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년정책협의체 회원들은 "무주 청년들이 한 데 모여 같이 고민하고 미래발전까지 도모해 갈 수 있는 아지트가 생겨 든든하다"며 "프로그램들 역시 청년들이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모아 기획한 것을 진행하는 만큼 만족도나 효과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온라인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성료

유튜브 활용 라이브커머스·랜선 한우마당·전시 등 다채롭게 진행

장수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 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지난 달 31일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 됐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장수군 의안공원에서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진행한 후 4일 동안 장수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축제를 진행했다.

축제 첫날인 28일에는 인기 유튜브 샵마을촌이 직접 장수군을 찾아 라이브방송으로 한우 먹방을 선보이며 장수 한우를 홍보했으며, 29일~30일에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트롯가수 양지원, 강혜연, 채운, 안성훈 등과

함께 장수의 명품 농특산물인 한우와 사과, 오미자 등을 판매했다.

30일 진행된 '랜선 한우마당'은 사전 신청을 받아 줌(ZOOM)을 이용해 함께 한우를 구워먹으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31일 축제 마지막 날에는 인기 유튜브 샵마을촌과 함께 장수 한우, 사과, 오미자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폐막식에서는 이정규의 보이는 라디오로 노라조, 유리사자 등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온라인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을 이용해 장수군 의안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일투미네이션 전시와 사진전, 시화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장영수 군수는 "온라인을 통해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에게 장수의 명품 한우와 사과를 알리면서 큰 자신감을 얻게 됐다"며 "이번 축제를 발판 삼아 내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수 축제추진위원장은 "온라인으로 개최해 안타까움이 컸는데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축제에 참가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년 축제에도 꼭 다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위드 코로나 전환 만전 기하자"

황인홍 무주군수가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쓰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1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6급 이상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1월 청년 월례조회 현안 업무들을 공유한 자리에서다.

황 군수는 이날 월례조회에서 "최근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긴 싱가포르와 영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후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착잡한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인력, 장비, 수송시설에 대한 민간의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황 군수는 "다시 말해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플랜B도 반드시 만들어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올해 군정 마무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가 1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 있어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결산인 만큼 담당업무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황 군수는 △올해 업무 마무리 및 내년 업무 준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준비 만전 △가을철 산불 예방 대비 철저 △공공비축미곡 수매 및 곡식건조 등 현장행정 추진에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홍삼연구소, 제6대 김태영 연구소장 취임

진안군은 전국 유일의 홍삼연구소인 (재)진안홍삼연구소는 1일부터 새 사령탑으로 제6대 연구소장 김태영 박사(金台榮, 67)의 취임으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태영 연구소장은 장류, 주류 등 발효기술 식품연구의 권위자로 약 36년간 연구에 힘써왔으며, 원광대학교에서 식품가공학을 전공하고 농학박사를 취득한 후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가공과장,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과장 및 (주)한산IF&G 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경력과 연구경험은 물론 식품가공, 유통 산업 분야 전문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태영 소장은 취임식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연구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연구소 조직원 모두가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 발휘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6개 읍면서 공공비축미곡 수매 착수

무주군이 3일부터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건조 벼) 수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안성면 이창고 창고에서 수매를 시작으로 오는 25일 무풍산지역 통센타에서 수매를 마무리함으로써 6개 읍면(11개 창고)에서 미곡 수매에 들어간다.

올해 물량은 총 131만2천kg(3만2,800포/40kg)으로 신동진과 해당 2개 품종 대상으로 수매한다.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 가격은 벼 40kg 기준해 특등급을 비롯한 1등~3등급까지로 전국 단일 가격이 적용되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정산할 계획으로 중간 정산금 3만 원을 지급한다.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을 하며, 품위 규격은 수분이 13~15%로 건조된 벼만 매입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농어촌공, 농촌협약 사업 협력 강화

진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1일 전춘성 군수, 양정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농촌협약 사업 업무협약식'을 진안군 청상황실에서 가졌다.

협약식은 지난 6월 진안군이 농식품부 주관으로 2022년 농촌협약 대상시·군으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철저한 공모 사전 대응 노력을 위해 사전 작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추진될 농촌협약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농촌협약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지역개발 관련 정책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발전 위한 업무협력 및 사업추진체계 구축,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이다.

또한 진안군은 2022년도 상반기에는 진안군-농식품부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26억원(국비 300억, 지방비 132억)을 투입해 각 읍·면 지역에 생활SOC시설,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기초생활서비스 구축을 통한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